

# 지난해 가축분뇨 5087만t 발생 퇴비·액비 등으로 85% 자원화

농식품부, 1.5만여 표본농가 대상 축산환경관리원과 현장조사 실시  
농가 55%, 약취저감 시설 보유  
두당 전력소비량, 젖소 가장 많아

지난해 국내 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의 대부분이 비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축분뇨는 도합 5000여만톤(t) 발생했고, 이 중 85%는 각각 퇴비(73%)와 액비(액체화된 거름·12%)로 활용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1만5000여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농장 현황, 가축분뇨 관리현황, 약취 관리현황, 에너지 사용현황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한우와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농가들이다.

농식품부가 축산환경관리원과 함께 실시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축분뇨는 총 5087만1000톤t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돼지분뇨는 1967만9000t(39%), 한우·육우 1751만1000t(34%)으로 전체 발생량의 73%를 차지했다.

작년 발생한 가축분뇨 2619만t(51.5%)는 퇴비 1930만t, 액비 264만2000t 등 농가에서 자가 처리됐다. 또 2468만1000t(48.5%)는 가축분뇨 처리 시설에 위탁해 퇴비 1772만3000t, 액비 336만1000t 등으로 자원화했다.

발생한 가축분뇨의 85%는 각각 퇴비(73%)와 액비(12%)로 활용됐다. 돼지 분뇨를 제외한 대다수 분뇨는 퇴비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종별로는 한·육우(80.5%)와 젖소(66.7%) 분뇨의 자가 처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닭(80.9%), 오리(71.9%), 돼지(61.7%) 분뇨는 주로 위탁 처리되고 있었다.

한편, 약취저감을 위해 농가의 55%(돼지 86, 닭 59 등)가 안개분무시설 등 장비·시설을 보유하고 있었다. 농가의 62%는 다양한 미생물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사 내 에너지 사용현황 조사결과, 한·육우의 경우 소형냉동고, 젖소는 원유냉각기, 돼지는 급이기, 닭은 환경제어기, 오리는 소형냉동고의 사용이 많은 특징을 보이고, 두당 연간 평균 전력 소비량(kWh/년)은 젖소(1061kWh), 한·육우(842), 돼지(112), 닭(49), 오리(11)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축사에서 사용하는 유류의 대부분은 면세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축사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여름철 차광막 설치, 단열재 시공, 친환경에너지 시설 설치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번 축산환경조사 결과의 세부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축산환경조사를 통해 축산현장 실태에 대한 신뢰성 높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축산환경 개선 정책 수립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농식품부, K-푸드 2000만달러 계약 성과

K-푸드+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전 세계 36개국, 412개사와 진행  
농식품, 전년비 약 5% 증가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지난주 개최된 ‘2024년 K-푸드+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에서 2000만 달러 규모의 현장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이달 17~18일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열렸다. K-푸드+란 한국 농식품을 뜻하는 K-푸드에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 의약품 등 전후방산업을 더해 농식품산업과 연관산업을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정부는 농식품과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전 세계 36개국 412개사(해외 바이어 141개사, 국내 수출기업 271개사)가 한자리에 모여 총 2129건의 1:1 수출 상담을 실시했다. 이 중 총 42건 약 2000만 달러 규모의 현장 계약·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농식품 분야는 감자햇고고, 인삼제품, 포도 등 34건 1200만 달러, 전후방산업은 유기농액비, 비료, 스마트팜 자재 등 8건 800만 달러 규모의 현장 계약·업무협약을 체결해 전년(1900만 달러) 대비 약 5%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정부는 참여기업 선정 시 비건, 할랄 등 인증서 보유 여부, 수출용 포장지 제작 여부 등 수출기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 바이어들은 이전 수출상담회에 비해 수출기업 제품 완성도 및 준비 정도가 한층 나아졌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말했다.

행사장에서는 또 1:1 수출 상담 외에도 ▲참가기업 주요품목 전시관 ▲수출통합조직(딸기, 파프리카 등 9개 품목) 홍보관 ▲스마트팜, 비료, 농약, 사료 등 전후방산업 홍보관 ▲메타버스

홍보관 ▲농식품수출정보(KATI) 홍보관 ▲케이푸드트레이드 홍보관 등이 운영됐다.

송미령 농식품부장관도 지난주 현장을 찾았다. 송 장관은 “이번 행사는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 유력 식품 바이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수출상담회 외에도 한류 연계 소비자홍보(PPL), 해외 주요도시 K-푸드페어 행사,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K-푸드를 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온 GLICA 소속 마이클 김은 “미국 남부에서 K-푸드의 인기가 대단하다. 현재 밴더로 등록되어 있는 남부지역 주력 매장인 H.E.B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한국산 신선배와 배즙을 수입해 유통시키고 스낵류, 면류 등 다양한 상품을 추가로 발굴하고 싶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농진청, 신제품·신제품 시장성 평가 실시

대형 유통업체 책임자에 의뢰

농촌진흥청은 25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농촌진흥기관 지원을 받아 개발한 신제품·신제품의 시장성 평가를 대형 유통업체 책임자에게 의뢰해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들어 처음 열리는 시장성 평가는 신제품·신제품이 시장성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상품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상품 판촉 기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평가에는 백화점과 대형 마트, 도매시장, 온라인 유통업체 책임자가 참석해 신제품·신제품 15품목을 대상으로 시장 판매 가능성을 진단한다. 품종 또는 상품별 소개와 참석자 토론을 거쳐 개선점을 찾고 해결점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장성 평가 품목 가운데 농촌진흥청 버섯과에서 개발한 황금색 팽이버섯 ‘아랍’과 고려지농업연구소에서 개발한 메밀품종 ‘황금미소’로 만든 메밀면이 특히 주목된다.

농진청은 올해 전문 유통인 시장성 평가를 총 3회 추진한다. 상반기(2회) 시장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품목을 선정해 판매처를 연결하고 입점 제반 사항 확인(해설 유무 등), 상품 포장 및 가격 협상을 거쳐 판매가 성사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하두중농진청농산업경영과과장은 “농촌진흥기관에서 개발한 신제품, 신제품의 시장성 평가를 지속해서 추진해 연구자들에게는 시장성 높은 상품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생산자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처상근 기자 skc8472@



한기대 온라인평생교육원은 24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원 10주년 기념행사와 정책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스텝, 세계적인 직업훈련플랫폼 만들 것”

한기대 온라인평생교육원 10주년  
평생직업 능력개발 온라인 허브 역할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기대)는 24일 오후 서울 엘타워에서 온라인평생교육원 개원 10주년 기념식 및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행사는 권태성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을 비롯해 임춘건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직무대리,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유길상 한기대 총장은 환영사에서 “온라인평생교육원의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STEP, 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은 국가 평생 직업 능력개발 온라인 허브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며 “개원 10주년을 계기로 한기대 구성원들은 ‘스텝’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명품 직업훈련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기대 온라인평생교육원은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2015년 ‘e-koreatech’ 플랫폼을 개발해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를 통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이 다양한 효과를 거두자 더 다양한 직업훈련사업을 아우를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인 ‘스텝’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스텝은 그간 다양한 직업훈련생과 기관들에 온라인 기반 직업훈련 기반 시설을 제공해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온라인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 고용부는 집체교육 중심의 다양한 직업훈련사업을 스텝을 활용한 스마트 혼합훈련 등 새로운 훈련 방법으로 전환, 국가 교육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10년간 누적 회원 수는 약 81만명으로 이터닝과 가상훈련 등 공공 온라인 훈련콘텐츠 1905개를 개발해 전 국민에 서비스하고, 학습관리시스템(LMS) 분양 기관 수는 653개 기관에 달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42.4억 감면

고용부, 약 39만명에 지원

청년 약 39만명이 올해 1분기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42억4000만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올해 1분기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사업을 시행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사업은 만 34세 이하 청년(1989년 이후 출생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439개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면서 응시료 지원을 신청한 경우, 정부가 응시료의 50%를 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첫 시행됐다. 1인당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으로 응시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험 응시 청년이 크게 증가하는 등 청년의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긍정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올해 1분기 국가기술자격 접수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3만2433명(2.6%) 증가했다. 이는 비청년층 접수가 전년 동기 대비 1만2477명(2.3%) 감소했음에도 청년층 접수가 4만4880명(6.1%)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보처리기사, 위험물산업기사, 건축기사 등 기사 시험에 응시하는 대학생 등 취업준비 청년층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제1회 기사 실기시험 청년 접수자는 전년 대비 2만5650명(20.8%) 늘었다.

또 응시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



12일 서울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사와 기능장 응시자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2.6%, 35.6% 증가했고, 같은 기간 실기시험 청년층 접수자도 필기시험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응시료 지원이 청년 1인당 3회로 제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시험에 청년층이 많이 응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이 맘껏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사업과 같은 청년 맞춤형 지원정책을 내실있게 운영함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청년지원 정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사업에 대한 이용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국가자격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